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군집 탐색 연구

: 자기 은폐, 체면 손상, 심리적 불편감, 상담 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2017년

서강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김 하 영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군집 탐색 연구

: 자기 은폐, 체면 손상, 심리적 불편감, 상담 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연구진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서강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하 영

논문인준서

김하영의 심리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일

주심 장 재 홍 ①인

부심 안 명 희 ①인

부심 연 규 진 ①인

목차

I. 연구의 필요성	1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문제	8
1)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8
2) 자기 은폐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13
3) 체면 손상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17
4)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20
5) 상담 관련 경험들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22
6)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25
III. 연구 방법	27
1) 참여자	27
2) 측정 도구	29
IV. 결과	33
1) 기술통계	33
2) 상관분석	35
3) 군집 분석	37
4) 로지스틱 회귀분석	41
V. 논의	43
참고문헌	56
부록	65

표 목차

〈표 1〉 기술 통계	33
〈표 2〉 상관분석표	35
〈표 3〉 군집 분석 최종 중심 값	37
〈표 4〉 ANOVA 분석을 통한 군집 간 연구 변인의 차이 검증	40
〈표 5〉 선호 집단을 기준으로 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41

그림 목차

〈그림 1〉 Cramer(1999, 383p)의 모형	15
〈그림 2〉 군집 분석 결과	38

국문 초록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군집 탐색 연구

: 자기 은폐, 체면 손상, 심리적 불편감,
상담 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존에 양정 평정 측정 방식으로 연구되어왔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양가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로 측정하고,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개방, 낙인, 신뢰 불신 각각의 수준에 따라 어떤 집단들이 분류되는지 확인하여 자기 은폐, 체면 손상, 심리적 불편감, 상담 관련 경험 변인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 성인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된 자료를 이 단계 군집 분석 방법을 통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자기 은폐, 체면 손상, 심리적 불편감 그리고 상담 관련 경험들이 각 집단을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상담 선호 집단, 강한 상담 선호 집단, 양가 집단, 무태도 집단이 나타났다. 양가 태도 집단과 무태도 집단은 긍정과 부정적인 태도가 유사한 강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양가 태도 집단의 태도 강도가 더 높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집단이었다. 선호 집단을 기준으로 한 위계적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자기 은폐와 체면 손상이 양가 집단에 속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양가 태도, 자기 은폐, 체면 손상, 심리적 불편감, 상담 관련 경험

I. 연구의 필요성

201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성인 평생 유병률은 25.4%로 집계되었지만,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추구한 성인의 비율은 9.6%에 불과했다. 이는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조사된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률 7%에 비하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유병률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심리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도움 추구를 꺼리는 ‘서비스 갭(service gap)’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Cramer, 1999).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담을 이용하지 않게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움이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유성경, 2005) 잠재적 내담자들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상담에 대한 태도는 도움 추구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Fischer & Turner, 1970). 많은 국내외 연구들(김주미, 유성경, 2002; 오태균, 김미경, 2013; 유성경, 유정이, 2000)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긍정적인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해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단일 선상에 연결되어 있고, 특정 개인의 태도가 선상의 단일 지점으로 간주되는 양정평정 측정 방식(bipolar rating scale)을 사용했다(이미경 외, 2010). 이러한 양정 평정 측정 방식을 사용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연구들은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 가능성을 높이는 접근 요인과 그 가능성을 감소

시키는 회피 요인들을 밝혀냈지만, 접근-회피 요인이 동시에 존재할 때 생기는 갈등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이미경, 이상민, 2010).

즉, 양정 평정 측정 방식을 사용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연구들은 태도가 가질 수 있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동시에 공존할 경우 야기되는 양가적인 태도를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이미경, 이상민, 2013). 이에 따라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는 양정평정 측정 방식의 제한점을 지적하고 무태도(non-attitude)와 양가 태도(ambivalent attitude)가 양정 평정에서는 가운데 점수로 표현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수원, 이지연, 1996).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도 양정 평정 측방 방식의 제한점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이미경 외, 2010) 상담에 대한 양가 태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양가 태도란 한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 혹은 신념과 부정적인 감정 혹은 신념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는데(Priester & Petty, 1996),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매우 흔하게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일관적인 한 방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 주목받지 못했다(이미경, 이상민, 2013), 따라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연구함에 있어 양가 태도와 무태도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양가 태도를 고려하지 못했던 선행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보다 입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긍정과 부정 태도를 독립적으로 측정하고, 양가 태도와 무태도 집단이 실존하는지 탐색하기 위한 군집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즉, 개별적으로 측정된 긍정, 부정적인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들로 자연 발생적으로 구분된 집단들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양정 평정의 한계로 단일한 태도로 측정되었던 양가 혹은 무태도 성격을 지닌 집단이 나타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태도 집단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각 태도 집단에 속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 태도 집단에 속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변인이 존재한다면 잠재적 내담자가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양가 태도와 무태도 집단에 있어, 접근 요인과 회피 요인이 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상이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각 집단의 차이점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Kushner와 Sher(1989)에 따르면 심리적 불편감 등의 접근 요인과 상담에 대한 두려움 등의 회피 요인 간의 갈등이 전문적 도움 추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 간 갈등을 포착할 때 상담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태도가 부족하다고 바라보는 것과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공존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Thompson, Zanna와 Griffin(1995)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태도를 이분법적으로 파악하지만, 실제로는 긍정과 부정이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러한 특성을 이해했을 때 대상에 대한 역동적인 태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양정 평정 방식으로 측정된 전문적인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에 혼재된 영향을 미쳤던 변인들이 긍정, 부정적인 태도 각각에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야기하는지 살펴본다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다면적인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겹 현상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동양 문화에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은폐, 체면 손상에도 관심을 갖고자 한다.

먼저, 자기 은폐(Self-concealment)는 개인이 지각하기에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숨기려는 경향으로(Larson & Chastain, 1990), 상담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회피 요인이다.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심리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능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인들에게 있어 자기 은폐는 전문적 도움 추구를 받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Kim, Atkinson & Umemoto, 2001).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다른 문화권 출신의 미국인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자기 은폐 경향을 보였고(Masuda et al, 2009), 아시아의 집단주의 및 가족주의 문화가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을 숨기도록 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Komiya et al, 2000).

하지만 자기 은폐와 전문적 도움 추구와 관련된 일부 선행 연구들은 자기 은폐의 영향력이 혼재되어 있음을 드러냈다(Cepeda-Benito & Short, 1998; Cramer, 1999; Kelly & Achter, 1995). 즉, 한편으로는 전문적 도움 추구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들이 나타났지만(Kelly & Achter, 1995) 다른 쪽에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 가능성을 낮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Cepeda-Benito & Short, 1998). 이러한 혼재된 결과는 자기 은폐가 개인 내에서 양가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한국인들의 경우 자기 은폐가 중요한 개인 내적 변인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국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었던 자기 은폐가 특정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기 은폐와 함께 동양의 문화와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는 변인 중 하나는 체면 손상에 대한 두려움(Loss of face: 이하 체면 손상)이다(Bathje, Kim, Bassiouny & Kim, 2014). 체면은 한 사람의 공적 이미지를 타인들 앞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적 성취에 기반 한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얼굴을 포함한다(이석재, 최상진, 2001). Leong과 동료들(2011)의 연구에 따르면 체면 손상은 아시아인들 사이에서 전문적 도움 추구 이용을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Heath, Vogel과 Al-Darmaki(2016)의 연구 역시 체면 손상이 전문

적 도움 추구 태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체면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가 거의 없고, 일부 국외 연구에서도 전문적 도움 추구하고 관련해 비일관적인 영향이 보고되었다(David, 2010; Yakunina & Weigold, 2011). 따라서 자기 은폐와 마찬가지로,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에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체면 손상이 양가적인 태도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잠재적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 관련 경험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면, 상담과 관련된 경험들이 전문적 도움 추구 가능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상담 경험 관련 변인들은 실제로 전문적 도움 추구하고 관련해 일상에서 어떤 경험을 직접,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정주리, 연구진, 양지웅, 김정기(2016)에 따르면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는 본인이 과거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인이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한 적이 있는지의 영향을 받았다. 또 유성경과 유정이(2000)는 상담 경험 유무로 집단을 구분하여 정신 병리에 대한 낙인 수용 정도를 연구하였는데,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 뿐 아니라 지인, 가족 등의 상담 경험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및 의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Molock, et al, 2007). 이 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문적 도움 추구는 일상에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게 되지만, 실제로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전문적 도움 추구가 하나의 전문 서비스임을 감안할 때(공은혜, 2008) 잠재적 내담자들이 전문적 도움 추구 비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용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집단으로 분류할 경우 어떤 집단들이 도출되는지, 그 중에서도 양가 태도와 무태도 집단이 실제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살펴보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양정 평정으로 측정하였을 때, 양가 태도와 무태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 했다. 또한 많은 접근, 회피 요인들이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지만 변인들의 혼재된 영향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과 부정 태도를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를 활용하여 태도를 측정하고, 군집 분석을 통해 태도 집단을 분류하여 실제로 양정 평정 측정 방법에서는 유사한 태도로 측정이 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태도 특성 및 심리적 특성이 구분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자기 은폐, 체면 손상, 상담 관련 경험이 군집 분석으로 구분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변화시키는지 살펴 볼 것이다. 자기 은폐, 체면 손상 그리고 상담 경험 유무, 지인의 상담 권유 유무, 상담 비용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 되어 왔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변인들이 부정 혹은 긍정의 일방향적인 영향이 아니라, 두 태도를 모두 증가시켜 양가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군집으로 분류하였을 때 양가 태도 집단과 무태도 집단이 구분된다면, 관련 변인들은 두 태도 집단 중 양가 태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기존에 구분되지 않았던 두 태도가 실제로 다른 태도임을 나타내는 결과일 것이다. 또한 양가 태도 집단과 다른 태도 집단 간의 차이가 명확해 질 경우, 잠재적 내담자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양가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에 전문적 도움 추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주요한 변인들이 혼재된 결과를 보인 원인을 군집 분석을 통

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전문적 도움 추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재적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들이 전문적 도움 추구를 하게 되거나 하지 않는 요인을 이해함으로써 상담 및 심리치료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러한 태도를 부정적인 태도 혹은 긍정적인 태도로만 파악해 왔지만, 실제로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복합적이고 모순된 태도를 파악한 경험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적 도움에 대한 태도 집단들이 구분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특히 양정 평정에서 중간 태도로 표현되는 태도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모두가 낮은 집단으로 나뉘는지 살펴봄으로써,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문제

1)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 추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행동과 의도를 예측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은 '태도'이다. 태도 개념은 인간 행동의 예측 변인으로 (Ajzen, 2001) 상담 임상 분야에서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잠재적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에 대한 인식 및 신념을 파악하고자 흔하게 사용되어왔다. Fischer와 Turner(1970), Aegisdottir와 Gerstein(2009) 등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또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관련하여 성별, 사회 경제적 수준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변인, 성역할, 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Cauce와 동료들(2002)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였고, Constantine(2002)의 연구에서는 미국 내 소수 인종 대학생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상담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다. Addis와 Mahalik(2003)은 남성성과 상담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이 중에서도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는 Miller(1944)의 고전적 접근-회피 갈등(Classic approach-avoidance conflict) 이론을 바탕으로 전문적 도움을 추구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접근 요인과 감소시키는 회피 요인(Kushner & Sher, 1991)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는 상담에 대한 태도를 긍정과 부정의 일차원에서 설명하는 양정 평정 측정방식을 사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양정 평정 측정 방식은 상담에 대한 태도를 긍정과 부정 태도가 연결된 단일 차원의 한

점으로 간주한다. 태도는 개인의 여러 상반된 특성들이 상호작용하여 형성하는데(이미경 외, 2010), 양정 평정은 태도의 여러 다차원적인 특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양가 태도에 관한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단일 차원을 넘어 전문적 도움 추구 영역에서도 양가적인 태도를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이수원과 이지연(1996)은 양정 평정에서 중간 점수를 보인 태도를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중립 태도와 정적 감정도 부정 감정도 갖고 있지 않은 중립 태도로 구분하였다. 양정 평정 측정 방법에서는 두 태도 모두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지만, 감정과 태도의 강도와 방향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미경과 동료들(2010)은 더 나아가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중간 태도를 양가 태도와 무관심 태도로 구분할 수 있는 상담에 대한 의미변별 형용사 척도를 개발했다. 한 대상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는 연구들은 다른 학문 분야에도 존재하며 그 중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Abelson과 그 동료들(Abelson, Kinder, Peters, & Fiske, 1982)이 정치가들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한 정치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두 감정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태도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따라서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도 잠재적 내담자들이 상담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담에 대한 의미변별 형용사 척도를 사용해 상담에 대한 양가 태도 집단의 특성을 분석한 이미경과 이상민(2013)은 기존의 양정평정에서는 동일한 점수로 나타난 중간 태도 집단이 양가 태도 집단과 무관심 태도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두 집단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의도, 상담이용에 대한 갈등량, 심리적 불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에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척도들이 상담에 대한 무관심 태도와 양가 태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태도 집단들이 어떤 접근, 회피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 되는지는 탐색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던 변인들이 새로운 두 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기존에 접근 요인지 회피 요인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거나 연구들에서 불일치한 결과가 보고되었던 변인들이 실제로는 접근-회피 갈등을 일으켜 양가 태도를 야기하는 것이 아닐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의미변별 형용사 척도를 사용해 신학대학원생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의도 및 자기개념과 공감능력을 살펴본 연구(오태균, 김미경, 2013)에서는 중위수를 기준으로 네 집단을 구분하고 각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양가 태도 집단은 다른 세 집단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자기개념 점수를 받았고 대인관계 역기능성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무관심 집단은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다른 집단에 비해 하위요인 중 성격적 자기 항목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지는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중위수를 사용한 집단 구분이 인위적이라는 한계는 분명 존재하지만, 양정 평정 측정 방식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구별된 집단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여러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두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 구분 방법은 실제로는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집단들을 인위적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차원적인 요인을 범주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위수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집단을 구분했기 때문에 양가 집단이라 할지라도 부정 태도보다 긍정 태도가 훨씬 더 높고, 양가 집단과 무태도 집단의 긍정, 부정 점수가 유사한 집단 간 특성의 한계점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이미경, 이상민, 2013; 오태균, 김미경,

2013). 이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태도 집단의 특성을 드러내는 분류법으로 보기는 힘들며, 연속형 변수를 임의로 범주형 변수로 변환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미경, 이상민, 2013). 즉, 중위수를 기준으로 고, 저 집단을 구분했기 때문에 양가 태도 집단이 다른 태도 집단에 비해서는 두 태도의 강도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강한 양가 태도를 보인 집단이 드러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군집 내 대상들이 한 점수를 준거로 하여 분류되었기 때문에 같은 집단에 포함된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특성이 균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긍정 태도의 중위수와 부정 태도의 중위수가 각각 3이라면 긍정 태도가 3.1점, 부정 태도가 2.9점인 사람과 긍정 태도가 4.5, 부정 태도가 1.5인 사람이 동일한 긍정 태도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들 간의 거리(distance)를 사용해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상들끼리 형성하는 집단들을 파악할 수 있는 군집 분석을 통해서도 양가 태도 집단과 무태도 집단이 드러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집단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는 이전에는 활발히 시도되지는 않았다. 그 중, 집단을 구분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를 살펴본 연구로는 상담 경험 유무로 집단을 구분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박준호와 서영석(2009)의 연구에서는 상담 경험 유무로 집단을 나눌 경우, 경로계수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모형이 너무 다르게 도출되어, 두 집단 간 개인 내적 변수들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또, 정주리, 연규진, 양지웅, 김정기(2016)의 연구에서도 상담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유의미했던 지인의 권유(‘귀하는 지인으로부터 심리 건강 서비스를 이용해보라고 권유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가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게 드러나면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및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냈다. 즉,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탐구함에 있어 집단의 특성을 활용한 구분이 실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군집 분석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집단을 확인/탐색해 보고, 양가/무태도 특성을 보이는 집단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즉, 군집 분석으로 도출되는 집단이 실제로 긍정적인 요인인 개방, 신뢰와 부정적인 요인인 낙인, 불신에서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자기 은폐, 체면 손상, 상담 관련 경험들이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2) 자기 은폐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자기 은폐(self-concealment)는 '개인이 지각하기에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숨기려는 경향'이다(Larson & Chastain, 1990). 이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Larson과 Chastain(1990)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생각과 감정이 있다는 점에서 자기 은폐는 보편적인 심리적 특성이며, 그 정도가 특히 강한 사람들도 존재한다. 또한 유독 자기 은폐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자기 은폐는 자기 개방(self-disclosure)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경험적으로 구분되는 변인이자 상담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회피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김주미, 유성경, 2002; 박정언, 박은아, 2016; 장진이, 2000; Bathje, Ki,m., Rau, Bassiouny, & Kim, 2014; Larson & Chastain, 1990).

자기 은폐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데(Larson & Chastain, 1990), 억제와 직면 모형(inhibition and confrontation model)에 따르면 자기 은폐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활 사건과 외상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사고, 정서를 조직화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 더 많은 신체 혹은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된다(Cramer, 1999). Pennebaker(1989)는 이러한 과정에서 트라우마 등 부정적인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으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기 은폐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인 자기 개방과 구별되는 인지적 특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억제(inhibition)하는 것은 그 경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정보 처리 과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

였다.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는 자기 은폐 경향이 불안 및 우울(Kelly & Achter, 1995), 지각된 사회적지지(Cepeda-Benito & Short, 1998)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 은폐는 심리적 고통, 불편감을 숨기려는 의식적 노력이지만 역설적으로 다시 그 고통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능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은폐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인들에게 있어 두드러지는 개념일 뿐 아니라(Kim, Atkinson, & Umemoto, 2001) 한국인의 독특한 행동 경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으로 제안되기도 했다(조공호, 2003).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Masuda et al, 2009)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유럽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자기 은폐 경향을 보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심리적 문제들을 털어놓는 것이 터부시 되는 문화권에서는 심리 전문가에게 심리적 고통을 털어놓는 것이 선택지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흔히 상담 장면에서 ‘말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담자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한국인들의 경우 자기 은폐가 전문적 도움 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은폐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및 의도와 행동,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의 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Cepeda-Benito & Short, 1998; Cramer, 1999; Kelly & Achter, 1995)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은폐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상담 요청 가능성은 더 높다는 Kelly와 Achter(1995)의 연구 결과와 자기 은폐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배나 높게 보고하지만 오히려 상담을 회피한다는 Cepeda-Benito와 Short(1998)의 연구 결과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

라 Cramer(1999)는 두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해 자기 은폐가 전문적 도움 추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모델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높은 자기 은폐는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함께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심리적 불편감이 높은 경우 자기 은폐는 심리적 불편감을 매개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심리적 불편감이 낮은 경우는 자기 은폐가 부정적인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매개하여 부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즉, Cramer(1999)의 연구 결과 자기 은폐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었으며,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는 두 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쳤다. Cramer(1999)의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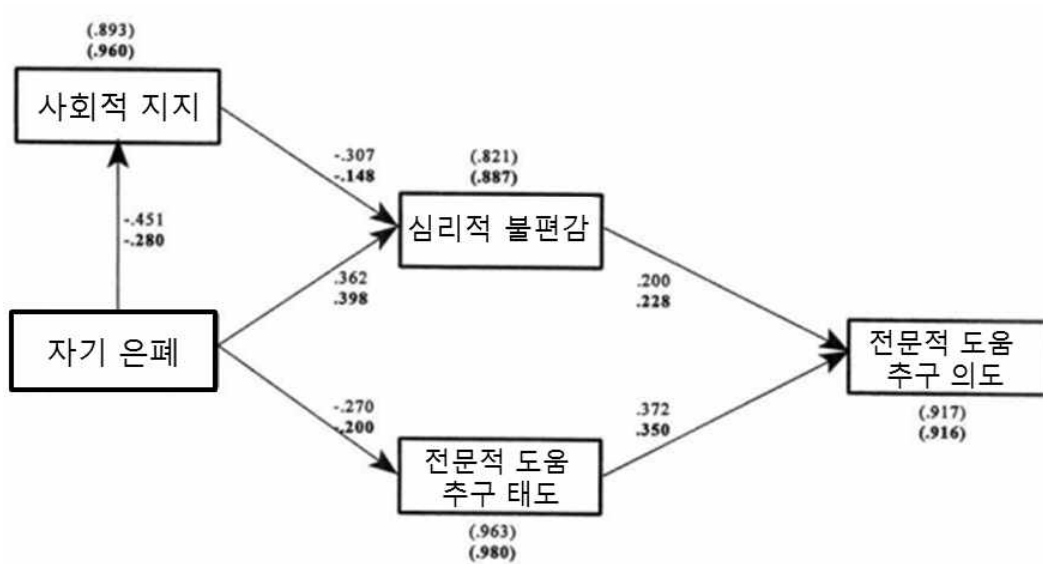


그림 1 Cramer(1999, 383p)의 모형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도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장진이(2000)의 연구에서는 자기 은폐가 높은 사람들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있어서 부정적일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지만,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서는 낮은 사람들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Kelly와 Achter(1995)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 김동민과 양대회(2010)에서는 Cramer(1999)의 모형을 국내에서 보완, 검증하였는데, Cramer(1999)의 모형이 자기 은폐 성향이 높을 경우 두 가지 경로로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기 은폐 성향, 심리적 불편감의 수준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기 은폐 성향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보다 심리적 불편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자기 은폐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 부정 차원만으로는 정확히 포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자면, 자기 은폐는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의도와 태도에 정적,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혼재되어 있다. 이는 자기 은폐가 양가 태도와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경과 이상민(2013)은 상담에 대한 양가 태도를 가진 집단이 상담에 대한 의도가 비교적 높음에도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갈등수준과 부정적인 인식 역시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자기 은폐와 상담에 대한 갈등 수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Priester & Petty, 1996), 자기 은폐가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기 보다는 양가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가 태도의 특성 상, 자기 은폐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개방을 요구하는 상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자기 은폐 성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기 힘들고, 심리적 불편감도 높아 오히려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지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은폐가 군집 분석으로 분류된 태도 집단들 중 어떤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자기 은폐가 양가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3) 체면 손상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동양 문화권에서는 ‘체면이 깎인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체면은 한 사람의 공적 이미지를 타인들 앞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적 성취에 기반한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얼굴을 포함한다(이석재, 최상진, 2001). 체면이 손상된다는 것은 공적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유발하게 된다(Bathje, Kim, Bassiouny & Kim, 2014). 체면이라는 개념은 한국인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문화적, 심리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이석재, 최상진, 2001). 특히 한국에서는 ‘아무리 쫓겨도 신발 벗고 가라’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체면을 차릴 것은 차려야 한다는 문화적 정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소비자-광고 분야(김재희, 김태훈, 전진안, 2008)와 사회심리학(이충원, 김효창, 2006) 분야 등에서 진행되어 왔고,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서양에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가 살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문화권에 아직까지 상담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양 문화권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유성경, 유정미, 2000). Leong과 동료들(2011)의 연구에 따르면 체면 손상에 대한 두려움(Loss of face; 이하 체면 손상)은 아시아인들 사이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 가족의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 아랍 에미리트에서 진행된 Heath, Vogel과 Al-darmaki(2016)의 연구에서도 체면은 도움 추구 태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상담을 받는 것이 밝혀질 경우 가족의 체면을 깎는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담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담 장면에서 가족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점을 진솔하게 털어놓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체면이라는 개념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체면 손상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일 가능성이 있다.

Heath, Vogel과 Al-Darmaki(2016)의 연구에서 체면은 도움 추구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장벽으로 여겨지는 낙인(Corrigan, 2004)과 마찬가지로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관련된 문화적 요인으로 밝혀졌다. 동양인 내담자와 서양인 내담자의 상담 서비스 이용 차이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Yamashiro & Matsuoka, 1997) 동양 문화의 특성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에서도 체면 손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더 나아가, 기존의 체면 손상과 관련된 연구들은 보통 미국 등 서양 국가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문화권 내의 한국인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유성경, 유정이, 2000).

하지만 국내에서는 체면 손상과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고, 일부 국외 연구에서도 체면 손상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비일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ong, Kim과 Gupta(2011)는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체면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아시아계 미국인 대학생들에 있어 체면이 손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낙인을 견뎌내는 능력을 취약하게 만들고,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지 않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David의 연구(2010)에서도 체면 손상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Cramer(1999)의 모델이 필리핀에서 적합한지 살펴본 Tuliao, Velasquez, Bello와 Pinson(2016)

의 연구에서도 체면 손상에 대한 두려움을 모델에 추가하여야 적합한 경로 모델로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체면 손상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은혜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상담에 대한 태도와는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Yakunina와 Weigold(2011)의 연구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체면 손상이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와 긍정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개인이 전문적 도움 추구를 하는 것 자체로 체면이 깎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도움을 회피하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을 때 악화될 증상이 체면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걱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도움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가지 염려는 실제 상황에서는 단독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함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그 결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단일 방향의 영향력을 가지기 보다는 두 태도를 동시에 형성하며 양가 태도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비일관적인 영향이 나타난 체면 손상이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공존하는 양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체면 손상이 분류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집단 중 어떤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4)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Rickwood와 Braithwaite(1994)에 따르면 심리적 불편감이나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고통이 선행해야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하게 된다. 즉, 심리적 불편감이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의 선행 조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심리적 불편감이 있을 경우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를 예측하는 변인인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불편감이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그 영향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김동민, 양대회, 2010; Cepeda-Benito & Short, 1997; Cramer, 1999; Kelly & Achter, 1995; Kim & Park, 2009). 하지만 심리적 불편감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 차원에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심리적 불편감은 심리적 특성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겪고 있는 주관적 고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자체에 영향을 준다고 보다는, 태도와 함께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심리적 불편감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였다(김주미, 2002; 신연희, 안현의, 2005; 이우람, 2016; 유영란, 이지연, 2006; Komiya, Good, Sherrod, 2000). 이러한 연구 결과 심리적 불편감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김주미, 2002)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Komiya, Good, Sherrod, 2000). 또는 심리적 불편감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연희, 안현의, 2005, 이우람, 2016).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를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변인

이라는 점에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와 공통점이 있지만, 두 변인이 행위를 예측하는 서로 다른 변인이라는 합리적 행동 이론(Ajzen, Timko, & White, 1982)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의도에 선행하는 변인임을 감안할 때, 심리적 불편감이 태도에 선행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가능성이 높다.

합리적 행동 이론에 따르면(Fishbein & Ajzen, 1975) 태도란 어떤 불확실한 것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고, 의도란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의 의지를 나타내는 동기적인 요인이다(Ajzen, 1991). 이를 참고할 때 심리적 불편감이 있는 경우(예, 나는 요즘 너무 우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예, 상담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가 변화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심리적 불편감이(예, 나는 요즘 너무 우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예, 나는 우울한 경우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다)에 영향을 미치며,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의도 이전에 선행하고 있다(예, 나는 상담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에 진행된 연구(Rickwood & Braithwate, 1994)가 전문적인 도움 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영향을 탐구하였는데, 그 중 심리적 불편감만 유일하게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는 비록 심리적 불편감이 상황적이고 상태적인 요인이기는 하나,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를 예측하는 데 있어 등한시 할 수 없는 변인이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불편감이 군집 분석으로 나타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변화시키는지 재확인하고자 하며,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집단에 속할 확률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5) 상담 관련 경험들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본 연구에서 상담 관련 경험들은 자신의 상담 경험 유무, 주변인으로부터 상담을 권유 받아 본 경험, 상담 1회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를 포함한다. 과거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Komiya & Eells, 2001; Walter, Yon & Skovholt, 2012). 또, 주변인으로부터 상담을 권유 받아 본 경험도 접근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주변인들의 규준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인 영향을 의미한다(Rickwood & Braithwaite, 1994). Molock과 동료들(2007)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자살에 대한 도움 추구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사회적 기준 뿐 아니라 가족과 동료들의 규준 역시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지인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하는 것은 일종의 심리 교육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를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Walter, Yon, & Skovholt, 2012).

본인의 상담 경험, 그리고 지인의 권유가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선행 연구(정주리, 연구진, 양지웅, 김정기, 2016)에 따르면 상담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지인의 권유가 상담이용 의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직접적인 상담 관련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상담과 관련된 경험들이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상담 경험 유무에 따라 정신 병리에 대한 오점을 수용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유성경, 유정이의 연구(2000)에 따르면 상담 경험이 있는 집단이 상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정신 병리에 대한 낙인 수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본인의 과거 상담 경험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의도 그리고 정신 병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행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바뀔 것일 수 있다(Collins & Hoyt, 1972). 즉, 전문적 도움을 추구한 경험이 있을 경우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전문적 도움 추구 관련 과거 경험이 군집 분석으로 나타난 특정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지인의 상담 경험이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Molock 등(2007)의 연구를 통해 지인이 전문적 도움을 권유할 경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전문적 도움을 하나의 전문적 서비스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문수정, 김계현, 2012; 신예지, 2013; 정주리, 연구진, 양지웅, 김정기, 2016; 최성인, 김창대, 2010; Gilchrist & Stringer, 1992). 서비스 마케팅의 관점에서 전문적 도움 추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문적 도움은 개인적인 사안을 노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을 높게 느끼는 '고관여 구매상황'에 속하고, 경험해보기 전에는 품질을 알 수 없는 '경험품질'에 해당한다(문수정, 2011). 이는 전문적 도움 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유용성 기대와도 일맥상통하는 관점이다. 또, 차태훈과 이정아(2006)에 의하면 한 상품이 위험 정도가 높고 정보가 적으면 구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문적 도움 추구는 상담을 경험한 주변인의 유무 뿐 아니라(공은혜, 2008)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입소문, 즉 구전(Word of Mouth)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적 도움 추구 후기에 관한 신예지(2013)의 연구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판매자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소비자들 간의 비공식적인 의사소통(Westbrook, 1987)"인 구전에 의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변화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인의 권유 역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며 태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심리 상담을 전문적인 서비스로 바라본다면,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역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잠재적 내담자들이 전문적 도움 추구 비용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나 자료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관한 연구(Robb et al., 2003)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비용(보험)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른 마케팅의 영역과는 달리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는 소비자 입장의 내담자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적 도움 추구 비용을 감당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 전문적 도움 추구 비용(fee for service)과 관련된 연구들은 상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내담자의 동기를 강화하고(Nash & Cavenar, 1976), 조기 종결을 할 가능성이 더 낮춘다는 결과를 나타냈다(McRae, 1978; Subich & Hardin, 1985에서 재인용).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 상담 기관과 같이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경우 구성원들의 이용률을 낮추거나, 비용 문제로 고충을 겪을 수 있는 내담자들에게는 불공평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Hurst et al, 1974).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을 책정한 후 잠재적 내담자들의 의향을 파악하는 방법(Subich & Hardin, 1985)을 사용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관련 연구를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담 1회기에 5달러, 25달러 등의 비용 책정이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외국의 경우 상담 관련 비용을 포함하는 의료 보험 시스템이 한국에 비해 정착화 되어 있어, 내담자들의 비용에 대한 부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내담자들이 상담 1회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을 직접 질문함으로써 내담자가 예상하는 상담 비용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6)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연구 문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집단을 분류하는데 사용하게 될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집단 연구에서는 대부분 중위수를 사용한 고, 저 집단 구분으로 태도 집단을 분류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무태도와 양가 태도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으로 군집 분석을 택하였다. 군집 분석은 대상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한 대상들을 동일 집단으로 분류하고, 상이한 특성을 구분하는 통계 방법이다. 대상들의 거리(distance)를 기준으로 특성을 분류하기 때문에, 양정 평정 측정 방식에서는 구분되지 않는 양가태도와 무태도 집단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로 긍정과 부정을 구분할 경우 각각의 태도에 있어 거리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단 구분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강남준, 이종영, 이혜미, 2003), 하나는 이론적 배경 혹은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분류된 집단의 특성을 해석하기 용이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다른 연구들과 집단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합의된 기준이 없는 경우 연구자에 따라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또, 기준의 타당성이 약한 경우 오히려 집단의 특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양가 태도 선행 연구들의 경우, 긍정, 부정 두 차원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네 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특정 기준을 분류로 했다고 볼 수 있다(이미경, 이상민, 2013; 오태균, 김미경, 2013). 하지만 포집의 중위수가 전체 인구에서의 중위수를 대표할 수는 없으며,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긍정 혹은 부정 태도가 높은 것은 상대적 기준으로 절대적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참가자가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중위수보다 낮은 점수를 보고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가 낮은 집단으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집단을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일정한 연산 규칙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다(김남준, 이종영, 이혜미, 2003),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 내에서 집단 분류의 기준을 형성하는 것으로, 각 요인의 특성이 유사한 케이스들이 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대표적인 방법이 군집 분석으로, 분류 기준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자연적인 방법으로 집단을 분류할 때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군집 분석은 서로 다른 표본에 따라 다른 기준이 도출될 수 있다는 한계점으로 인해 연구 간 비교와 시계열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분류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영역에 관한 연구의 경우 집단 기준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강남준, 이종영, 이혜미,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위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의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군집 분석을 채택하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태도 유형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집단을 알아보기 위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기 은폐, 체면 손상, 심리적 불편감, 그리고 상담 관련 경험들과 각 태도 집단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 연구 문제 1: 군집 분석을 사용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집단을 분류할 경우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들이 도출 되는가?
- 연구 문제 2: 각 집단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할 경우, 자기 은폐, 체면 손상, 심리적 불편감, 상담 관련 경험들은 한 대상이 각 태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변화시키는가?

III. 연구 방법

1) 참여자

기존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연구가 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온라인 리서치 업체인 인바이트에서 2013년부터 심리학 분야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장훈 장학회의 지원을 받아 만 19세 이상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41.01세였다. 연령대 별 분포는 20대가 21%, 30대가 25.4%, 40대가 28.1%, 50대 이상이 25.4%으로 고루 분포했다. 성별 분포는 여성이 48.8%, 남성이 51.2%였다. 과거에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참가자는 13.9%였으며, 지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받아 본 사람은 14.2%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사무직 혹은 경영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람이 45.8%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가 10.2%, 주부가 9.8% 순이었다. 선행 연구에서 모집단으로 가장 흔히 설정되었던 대학생은 5.4%였다. 학력은 전문대학 혹은 대학교 졸업자가 7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18%), 석사과정 이상 졸업(11.2%)이었다.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은 중하가 36.3%, 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참가자들의 거주 지역은 경기도/인천이 30.8%, 서울이 29.8%였으며 경상도/대구/부산/울산이 18.6%, 그 다음으로 충청도/대전/세종, 전라도/광주, 강원도, 제주도 순이었다.

참여자들은 장훈 장학회의 지원을 받아 인바이트(www.invight.co.kr)를 통

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에 관한 설명과 동의서를 숙지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한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장학회에서 500원을 보상으로 지급받았으며, 연구 참여에 관한 윤리 기준은 서강대학교 IRB의 동의(IRB 승인 번호: SGUIRB-A-1709-30)를 받았다.

2) 측정 도구

상담에 대한 양가태도 척도

상담에 대한 양가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미경 등(2010)이 개발한 ‘상담에 대한 의미변별 형용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의미 형용사를 개별적으로 평정하게 구성되어 있다. 상담에 대한 긍정과 부정 문항이 각각 8문항 씩 포함되어 있으며 ‘전혀(=1)’부터 ‘매우(=4)’의 4점 척도로 측정한다. 예를 들어, ‘건강하다’라는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혀 건강하지 않은’, ‘약간 건강한’, ‘상당히 건강한’, ‘매우 건강한’ 중 응답자의 느낌이나 생각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게 된다. 긍정 문항의 평균을 구하면 긍정 태도가, 부정 문항의 평균을 구하면 부정 태도가 산출되고, 긍정 태도의 하위 요인인 개방, 신뢰와 부정 태도의 하위 요인인 낙인, 불신의 점수 역시 평균으로 도출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긍정 태도와 부정 태도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방, 낙인, 신뢰, 불신 각 하위 요인의 점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활용해 이 단계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긍정 점수에서 부정 점수를 빼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양정 평정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는 -3에서 3점의 범위의 호오도 점수가 산출된다. 양가 태도 점수는 두 태도의 강도와 태도 간 점수 차이를 활용해 양가성을 계산하는 Griffin(Thompson, Zanna & Griffin, 1995)의 ‘(긍정 태도+부정태도)/2 - |긍정 태도-부정태도|’ 공식을 사용해 도출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0.5~4이다. 상담에 대한 의미변별 형용사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이미경, 이상민, 2013)에서 나타난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86이었으며, 하위척도의 경우 개방-낙인은 .81, 신뢰-불신은 .82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개방 .80, 낙인 .77, 신뢰 .86, 불신 .71이었다.

자기 은폐 척도

Larson과 Chastain(1990)이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경향성을 포착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은폐 척도(Self-Concealment Scale: SCS)를 장진이(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수검자에게 자신을 잘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한다. 척도는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중요한 비밀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분석에서는 척도 전체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평균 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높은 자기 은폐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 연구(Larson & Chastain, 1990)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83이었으며,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92였다.

체면 손상 척도

체면이 손상되는 것과 관련된 상황, 행동을 회피하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Zane(2000)이 개발하고 Utah University의 이재희와 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이경희가 번안, 검토한 Loss of Face-K(LOF-K)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1문항,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누군가와 단 둘이 있을 때 나를 비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판하는 것이 더 기분이 상한다' 등의 문항이 제시되면 수검자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1)'부터 '매우 그렇다(=7)'로 응답한다. 분석에는 척도 전체의 점수 평균을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체면 손상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나타낸다(Leong, Wagner & Kim, 1995). 원 척도의 신뢰도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84였다.

심리적 불편감 척도

심리적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oldberg와 Hillier(1979)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선별과 조기발견을 위해 개발한 60문항의 전반적 건강 척도(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 중 삶의 질을 측정하는 12개의 문항을 선정한 GHQ-12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지난 2~3주 동안 어떻게 심리 상태가 변화하였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항상 그렇다(=6)'로 구성된 6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된다. 문항의 예시로는 '근심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 등이 있으며,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등 역산 문항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박종익 등(2012)에 의해 번역된 버전을 사용하였다. 박종익 등(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79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87이었다.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척도

실제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있어 전문적 도움을 받을 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ash와 Begley, McCown, Weise(1975)가 개발한 상담 의도 목록(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Inventory: ISCI)을 신연희와 안현의(2005)가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군집 분석으로 분류되는 집단 간 유의미한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하였다. 신연희와 안현의는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원문 ISCI는 총 17문항으로 6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을 따라 '절대 아니다(=1)'부터 '매우 그렇다(=6)'의 범위에서 수검자가 해당 문제를 겪을 경우(예: 과도한 음주, 대인관계 문제 등) 상담을 받을 의향을 응답하게 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92였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척도

기존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된 Fischer와 Farina(1995)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SPPH)를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양정 평정 척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숙경(2010)이 선정한 10문항으로 구성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단축형 척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Short Form: ATSPPH-SF)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만약 정신적인 문제로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나는 우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것이다' 등이 있다. 수검자는 총 10문항에 자신의 도움 추구 태도를 잘 나타내는 정도를 '전혀 아니다(=1)'부터 '매우 그렇다(=4)'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된다.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역산하여 긍정적 태도와 합산한 평균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남숙경(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 신뢰도는 .71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78이었다.

상담 관련 경험 측정 방법

상담 관련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주리, 연구진, 양지웅, 김정기(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인의 상담 관련 과거 경험과 지인으로부터 권유받아 본 경험은 '귀하는 이전에 심리 건강 서비스(심리 상담, 심리 치료 등)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지인으로부터 심리 건강 서비스(심리 상담, 심리 치료 등)를 권유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에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상담 1회기의 비용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상담 1회(50분 기준)의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원 단위를 제외한 숫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IV. 결과

1) 기술 통계

〈표 1〉 기술 통계 (n=295)

	점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개방	1~4	1.00	4.00	2.49	.61
낙인	1~4	1.00	3.25	1.73	.50
신뢰	1~4	1.00	4.00	2.82	.57
불신	1~4	1.00	3.00	1.40	.41
호오도	-3~3	-1.00	3.00	1.09	.78
양가 태도	-0.5~4	-.50	2.81	.99	.70
상담 의도	1~6	1.00	5.76	2.82	.98
자기 은폐	1~5	1.00	5.00	2.94	.84
체면 손상	1~7	2.24	5.86	4.21	.67
<hr/>					
GHQ	1~6	1.00	3.92	2.00	.52
<hr/>					
ATSPPH	1~4	1.70	4.00	2.86	.41
상담 비용		1500	200000	41450.85	32297.59

주. 호오도 = (개방+신뢰)-(낙인+불신),
 양가태도 = (개방+신뢰+낙인+불신)/2- |(개방+낙인)-(신뢰+불신)|,
 ATSPPH: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Professional Help, 전문
 적 도움 추구 태도 척도
 GHQ: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심리적 불편감 척도

수집된 자료는 SPSS Ver.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체 표본에서 척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를 살펴보면 개방과 신뢰의 긍정적인 요인이 각각 2.49, 2.82로 부정 요인인 낙인, 불신의 1.73, 1.4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를 사용해 계산한 양정 평정 점수인 호오도의 평균은 1.09으로 중간값인 0보다 높게 나타났고, ATSPPH의 평균 역시 2.86로 중간값인 2.5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표본이 전반적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는 평균 2.82, 자기은폐의 평균은 2.94, 체면 손상의 평균은 4.21, 심리적 불편감의 평균은 2.00으로 나타났다.

2) 상관분석

〈표 2〉 상관분석표

	개방	낙인	신뢰	불신	상담 의도	자기 은폐	체면 손상	GHQ	ATSPPH	만나이
낙인	-.38**	.								
신뢰	.63**	-.24**								
불신	-.24**	.62**	-.34**							
상담 의도	.14*	-.02	.13*	-.04						
자기 은폐	-.11	.26**	-.08	.16**	.27**					
체면 손상	-.11	.27**	.00	.15*	.13*	.38**				
GHQ	-.07	.23**	-.09	.19**	.34**	.52**	.30**			
ATSPPH	.43**	-.33**	.52**	-.36**	.23**	-.09	-.12*	-.03		
만 나이	-.04	.08	-.10	.25**	-.19**	-.16**	.03	-.17**	-.10	
상담 비용	-.02	-.11	.03	-.09	-.10	-.12*	.03	-.18**	.09	.13*

p<.05 *, p<.01 **

주, ATSPPH: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Professional Help,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척도
GHQ: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심리적 불편감 척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미변별 형용사 척도의 하위 요인은 서로 유의 수준 .01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 요인은 상담 의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14, p < .05$), ATSPPH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43, p < .01$)을 보였다. 낙인은 자기 은폐($r = .26, p < .01$), 체면 손상

($r = .27, p < .01$), 심리적 불편감($r = .23,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ATSPPH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33, p < .01$)을 보였다. 신뢰는 상담 의도($r = .13, p < .05$), ATSPPH($r = .52,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불신은 자기 은폐($r = .16, p < .01$), 체면 손상($r = .15, p < .05$), 심리적 불편감($r = .19, p < .01$), 만 나이($r = .25,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ATSPPH($r = -.36, p < .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로 개별적으로 측정할 경우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와는 개방, 신뢰의 정적인 하위요인이, 자기 은폐, 체면 손상, 심리적 불편감과 같은 심리내적 요인과는 낙인, 불신과 같은 부정적인 하위요인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 의도는 자기 은폐($r = .27, p < .01$), 체면 손상($r = .13, p < .05$), GHQ($r = .34, p < .01$), ATSPPH($r = .23,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만 나이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19, p < .01$)을 보였다. 자기 은폐는 체면손상($r = .38, p < .01$), 심리적 불편감($r = .52,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만 나이($r = -.16, p < .01$)와 상담 비용($r = -.12, p < .05$)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체면 손상은 심리적 불편감($r = .30, p < .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ATSPPH($r = -.12, p < .05$)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GHQ로 측정한 심리적 불편감은 만 나이($r = -.17, p < .01$), 상담 비용($r = -.18, p < .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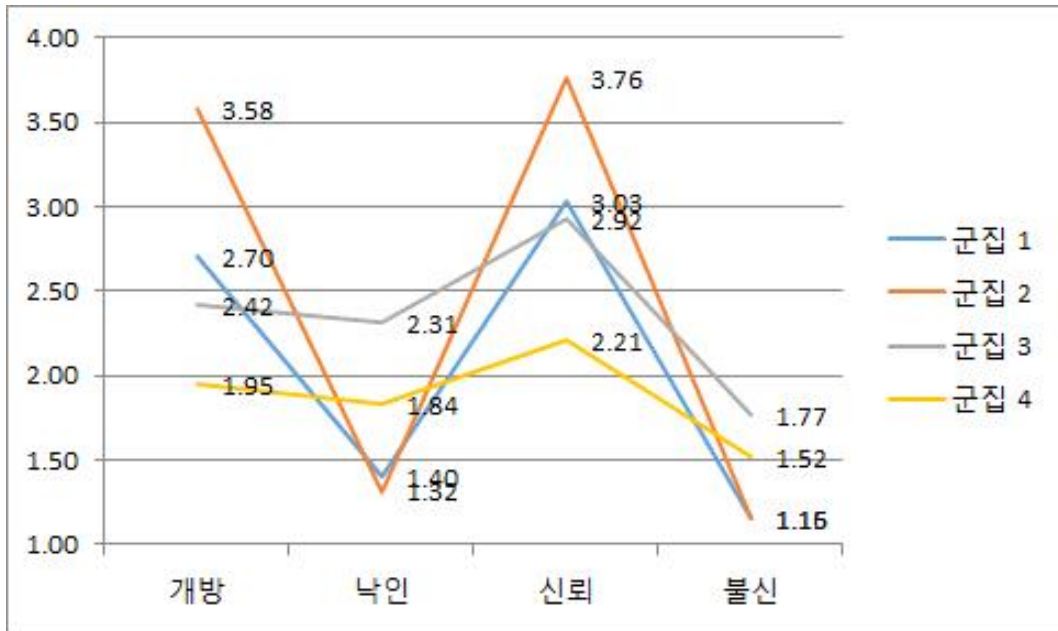
3) 군집분석

〈표 3〉 군집분석 최종 중심값

	군집 1(n=106)	군집 2(n=30)	군집 3(n=63)	군집 4(n=96)
개방	2.70	3.58	2.42	1.95
낙인	1.40	1.32	2.31	1.84
신뢰	3.03	3.76	2.92	2.21
불신	1.15	1.16	1.77	1.52

전문적 태도 집단의 개방, 낙인, 신뢰, 불신 하위 요인들의 특성에 따라 어떤 집단들이 분류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Ward Method와 K-means 분석을 활용하는 이 단계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Hair & Black, 2000). 이 단계 군집 분석은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 Method와 비위계적인 군집분석인 K-means 분석을 조합하여 예외적인 사례가 군집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Chiu, Fang, Chen, Wang, & Jeris, 2001). 군집을 형성하는 기준은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의 하위 척도인 개방, 낙인, 신뢰, 불신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이 단계 군집 분석을 실시했다. 1단계에서는 Ward Method로 각 군집의 초기 중심점을 탐색한 후 2단계에서 K-means 방법의 초기 시작점으로 설정하여 군집을 분류하였다. 1단계 군집 초기 중심점 탐색 결과 및 긍정, 부정 차원으로 태도 집단을 구분하였던 선행 연구(이미경, 이상민, 2013) 결과와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군집수를 4개로 설정하였다.

군집 분석 결과,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긍정적인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고(M = 2.70; M = 3.03) 부정적인 태도가 낮은(M = 1.40; M = 1.15) 군집 1, 군집 1보다도 더 높은 개방, 신뢰 점수(M = 3.58; M = 3.76)를 보인 군집



<그림 2> 군집분석 결과

2. 개방, 낙인, 신뢰가 유사한 강도로 존재하는 군집 3($M = 2.70$; $M = 2.92$, $M = 2.31$), 모든 요인이 전부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군집 4가 도출되었다($M = 1.95$; $M = 2.21$, $M = 1.84$; $M = 1.52$). 각 집단의 특성은 그림 2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드러난 하위요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군집 1은 선호 집단, 군집 2는 강한 선호 집단, 군집 3은 양가태도 집단, 군집 4는 무태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 후 각 집단의 연구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3에 제시된 ATSPPH, 양가 점수, 자기 은폐, 체면 손상 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TSPPH는 강한 상담 선호 집단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선호 집단이었으며 무태도

집단과 양가 집단은 Scheffé 사후 검증에서 유의미한 집단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양정 평정으로 측정한 경우 무태도와 양가 태도 집단이 구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를 Griffin(Thompson, Zanna & Griffin, 1995)의 공식을 사용해 계산한 양가 점수는 양가 태도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무태도 집단, 선호 집단, 강한 선호 집단 순이었다. 자기 은폐는 무태도 집단은 다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양가 태도 집단이 선호, 강한 선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면 손상은 무태도와 강한 선호 집단에 있어서는 구분되지 않았지만 양가 태도 집단과 선호 집단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의도와 심리적 불편감은 Scheffé 사후 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담 선호 집단의 상담 의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양가, 강한 선호 집단의 순이었고 무태도 집단의 상담 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 ANOVA 분석을 통한 군집간 연구변인의 차이 검증

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 검증
ATSPPH	1	106	3.02	.31	36.55	.000	2>1>3, 4
	2	30	3.24	.52			
	3	63	2.76	.30			
	4	96	2.61	.37			
양가 태도	1	106	.48	.31	224.38	.000	3>4>1>2
	2	30	.02	.48			
	3	63	1.68	.43			
	4	96	1.40	.41			
자기 은폐	1	106	2.80	.86	4.88	.003	3>1, 2
	2	30	2.67	.89			
	3	63	3.24	.86			
	4	96	2.97	.74			
체면 손상	1	106	4.07	.73	5.59	.001	3>1
	2	30	4.15	.55			
	3	63	4.49	.73			
	4	96	4.21	.55			
상담 의도	1	106	2.97	1.01	1.36	.026	1>3,2>4
	2	30	2.82	1.27			
	3	63	2.92	1.00			
	4	96	2.58	.77			

주, ATSPPH: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Professional Help,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양가 태도: $(\text{개방} + \text{신뢰} + \text{낙인} + \text{불신}) / 2 - |(\text{개방} + \text{신뢰}) - (\text{낙인} + \text{불신})|$

사후 검증: ATSPPH, 양가 점수, 자기 은폐, 체면 손상은 Scheffé 사후 검증을, Scheffé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가 나타나지 않은 상담 의도는 Duncan을 사용하였다.

4)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5〉 선호 집단을 기준으로 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회귀 계수	표준 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강한 선호 집단	자기 은폐	-.37	.31	1.38	1	.24	.69
	체면 손상	.34	.35	.99	1	.32	1.41
	GHQ	-.17	.51	.11	1	.74	.84
	상담 경험	.64	.58	1.22	1	.27	1.89
	지인 권유	.37	.65	.33	1	.57	1.45
	상담 비용	.00	.00	.01	1	.94	1.00
	만 나이	-.00	.02	.02	1	.88	1.00
	성별	.05	.44	.01	1	.91	1.05
	자기 은폐	.57	.25	5.13	1	.02	1.77
	체면 손상	.86	.29	9.04	1	.00	2.36
양가 집단	GHQ	-.40	.40	1.02	1	.31	.67
	상담 경험	-.72	.55	1.70	1	.19	.49
	지인 권유	.53	.54	.98	1	.32	1.70
	상담 비용	.00	.00	2.68	1	.10	1.00
	만 나이	.03	.02	3.57	1	.06	1.03
	성별	.10	.35	.08	1	.78	1.10
	자기 은폐	.20	.22	.84	1	.36	1.22
체면 손상	.19	.24	.61	1	.43	1.21	
무태도 집단	GHQ	.38	.35	1.20	1	.27	1.46
	상담 경험	-.90	.52	2.99	1	.08	.41
	지인 권유	.11	.51	.05	1	.83	1.11
	상담 비용	.00	.00	1.11	1	.29	1.00
	만 나이	.02	.01	2.60	1	.11	1.02
	성별	-.37	.30	1.45	1	.23	.69
카이 제곱	47.87 ($\alpha = .003$)						
-2LL	716.33						
Nagelkerk R ²	.16						
주, GHQ: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심리적 불편감 척도							

자기 은폐, 체면 손상, 상담 관련 경험과 인구학적 배경변인이 다른 태도 집단들에 비하여 양가 태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 선호 집단을 기준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준 집단을 선호 집단으로 설정한 이유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긍정 태도 집단에 비하여 다른 태도 집단들의 차이를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가 높고 부정적인 태도가 낮은 집단에 비하여 자기 은폐, 체면 손상, 심리적 불편감, 상담 관련 변인들이 강한 선호 집단, 양가 태도 집단, 무태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기 은폐와 체면 손상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집단 중 양가 태도 집단에 속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은폐 ($B = .57, p < .05, \text{Exp}(B) = 2.89$)의 수준이 1 높아질수록 선호 집단에 비해 무태도 집단에 속할 확률이 2.8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면 손상의 수준이 1 높아질 경우 선호 집단에 비해 무태도 집단에 속할 확률은 4.14 배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B = .86, p < .01, \text{Exp}(B) = 4.14$). 반면 두 변인은 ATSPPH에서는 유사한 점수를 보였던 무태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 은폐와 체면 손상이 양가 태도 집단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이라는 연구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심리적 불편감의 경우 어떤 집단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심리적 불편감이 태도를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V. 논의

본 연구는 기존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연구가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포함한 만 19세 이상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 분석 결과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는 기존에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ATSPPH와 상관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척도 개발 연구(이미경 외, 2010)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선행 연구의 수렴 타당도를 참고할 때, 본 연구에서도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측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ATSPPH는 상담 의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데 비해,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로 측정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개방, 신뢰의 긍정 요인과만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드러났다. 더 나아가 부정적 요인은 상담 의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자기은폐, 체면 손상, 심리적 불편감과만 각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가 태도를 구분하여 측정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양정 평정 측정 방법에서는 여러 심리적 요인들이 태도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두 태도를 개별적으로 측정했을 때 드러난 상관관계는 성인들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태도를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두 태도와 관련된 요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함의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 자체가 긍정과 부정 요인을 구분해서 측정했기 때문에 각각의 하위 요인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일부분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로 측정한 개방, 신뢰와 낙인, 불신의 점수 범위를 살펴보았을 때, 부정 요인은 더 낮은 점수 범위에 집중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긍정과 부정 요인의 역산 값을 포함해 계산하는 ATSPPH는 점수 범위가 좁은 부정 요인과는 상관관계가 도출되지 않았을 수 있다. 혹은 ATSPPH와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중 긍정적인 요인이 부정적인 요인보다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 중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하위 요인인 낙인과 불신은 상담 의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 은폐, 체면 손상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자기 은폐, 체면 손상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 연구들(Cepeda-Benito & Short, 1998; Cramer, 1999; David, 2010; Tuliao et al, 2016)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의 하위 요인을 기준으로 이 단계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집단이 도출되었다. 군집 1은 긍정 요인인 개방과 신뢰가 높았고 부정 요인인 낙인과 불신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를 ‘상담 선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 속한 잠재적 내담자들이 상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전문적 도움 추구, 즉 상담을 받는 것이 상당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상담을 받게 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 심리 상담이 믿을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가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상담을 받는 것을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심리 상담의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군집은 상담 선호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 신뢰를 나타냈다. 부정적인 태도인 낙인과 불신은 유사한 수준으로 낮았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매우 적은 수로 분류되었는데, 그 이유는 군집 분석 과정에서 선행 연구(이미경, 이상민, 2013)의 군집 수를 기준으로 군집 초심값을 참고하

여 이론적 해석에 적합한 최종 군집 수를 설정했으며, 표본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가 높고 긍정적인 태도가 낮은 부정 집단이 존재하지 않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두 개의 집단으로 세부 분류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전문적 도움 추구를 받는 사람들에게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을 받는 것이 독립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심리 상담의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유용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여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을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의존적이라고 낙인찍지 않으며 상담이 쓸모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매우 긍정적인 집단이라고 해석했으며 '강한 선호 집단'으로 명명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요하게 살펴보고 했던 양가 태도 집단과 무태도 집단이 군집 3과 4로 구분되었다. 군집 3의 태도 요인 분포를 살펴보면, 다른 군집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낙인과 불신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강한 선호 집단보다는 낮지만, 선호 집단과 유사한 강도의 개방, 신뢰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사한 수준의 긍정, 부정 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군집 3을 '양가 태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상담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를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 상담가 및 심리 상담이 현명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상담을 받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태도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데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갈등량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복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상담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모순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담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숨기지는 않지만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경우 수치심을 느끼거나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상담 신청을 하고 난 후에도 자신이 현명

한 선택을 한 것인지 고민하며 첫 회기를 방문하는 것을 망설이는 복합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네 번째 군집은 양가 태도 집단에 비해 모든 태도 강도가 낮았다. 긍정 요인인 개방과 신뢰의 경우 모든 집단 중에 가장 낮은 점수 분포를 보였으며, 부정 요인인 낙인과 불신의 경우 선호 집단과 강한 선호 집단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양가 태도 집단에 비해서는 낮았다. 즉, 모든 태도의 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아직 태도가 형성될 만큼 심리 상담에 대한 정보를 접해본 적이 없거나, 접했다고 할 지라도 그러한 정보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본인 혹은 주변 사람들이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도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태도 집단과 양가태도 집단이 구분된 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태도 분포의 형태만 살펴볼 경우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는 집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강도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집단 중 어떤 집단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개방, 신뢰 요인만을 살펴볼 경우 양가태도 집단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낙인과 불신 요인을 살펴보면 무태도 집단이 덜 부정적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실제로 기존의 양정 평정 측정 방법으로는 구분할 수 없었던 중간 태도의 하위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군집 분석으로 구분된 4개의 집단은 의미변별 형용사 척도로 측정하여 계산한 호오도와 양가 점수, ATSPPH로 측정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사후 검정에서도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호오도는 무태도 집단이 제일 낮았고, 그 다음으로 양가 집단, 선호 집단, 강한 선호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가 점수에 있어서는 강한 선호 집단

이 제일 낮았고, 선호 집단, 무태도 집단, 양가 집단 순으로 높은 양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TSPPH에서는 선호 집단과 강한 선호 집단이 무태도 집단, 양가 태도 집단과 구분되었으나 무태도 집단과 양가 집단 간에서는 두 집단의 평균이 각각 2.62, 2.76으로 사후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이미경, 이상민, 2013)와 마찬가지로 양정 평정으로는 양가 집단과 무태도 집단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그리고 양가 태도 집단과 무태도 집단이 양정 평정 측정에서 이론 상 중간값과 유사한 수준의 태도를 나타냈다는 점 역시 양가 태도와 무태도 집단이 중간 태도에 위치한다는 가정(이수원, 이지연, 1996)에 부합하였다. 또한 개인의 다양한 경험들이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실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비일관적이며 비논리적이게 보일 수 있지만 긍정과 부정 태도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Ajzen & Fishbein, 1980) 현상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두 집단은 ATSPPH로 측정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로 측정한 양가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있어서 기존의 양정 평정 측정 방식으로는 구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정했던 양가 집단과 무태도 집단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양가 태도 집단이란, 긍정과 부정 태도의 강도가 유사하게 높게 존재하는 집단이고, 무태도 집단이란 긍정과 부정 태도의 강도가 유사하게 낮게 존재하는 집단이다. 긍정 요인이란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의 개방, 신뢰를 의미하고 부정 요인이란 낙인, 불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가 태도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개방적이고 전문성을 신뢰하는 동시에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과 상담의 효용성을 불신하는 태도가 공존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무태도 집단은 상담 혹은 심리 상담가를 신뢰하지도, 불신하지도 않으며 상담을 받는 것을 개방적으로

대하지도, 낙인을 찍지도 않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선행 연구에서 중위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나타났던 부정적인 태도 집단은 군집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링크를 사용한 표집을 진행했고 평균 연령대가 약 41세이고 50대 이상이 약 25%임을 고려할 때, 연령에 비해 인터넷 사용이 활발하고 사회적 변화에 개방적인 사람들이 설문에 응답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가 낮게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터넷 사용으로 대표되는 특성들이 응답자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대한 개방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실제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낙인과 불신이 줄어들었고 개방적인 태도와 신뢰는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다. 1998년 진행된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비교한 연구(유성경, 1998)에서는 ATSPPH로 측정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평균이 2.65로 나타났다. 또, 2000년에 진행된 연구(유성경, 이동혁, 2000)에서도 ATSPPH를 사용해 측정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평균 점수는 2.57 정도였다. 본 연구에서는 2.86으로 나타나, 과거의 연구보다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더 긍정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부정적인 태도 집단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사회의 변화로 인한 긍정적인 태도의 증가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독일에서 진행된 Angermeyer와 Matschinger(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에 비해 2001년에 대중들의 전문적 심리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는 주변에서 전문적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낙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전문적 심리 서비스를 받는 유명인들이 점차 매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됨에 따라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개방성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과거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상담'이 교도 상담 등의 교

정적 목표를 지닌 상담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점차 심리 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 성장 뿐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사회 전반의 태도 인식 변화 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양가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했던 자기 은폐, 체면 손상, 상담 관련 변인들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기 은폐, 체면 손상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에서 자기 은폐는 강한 선호 집단과 선호 집단에 있어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양가 집단의 자기 은폐 경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자기 은폐가 높은 사람들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개방성과 신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개방할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양가적인 태도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체면 손상에 있어서도 양가 집단의 평균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있어 유사한 중간 값을 보인 무태도 집단과 양가 태도 집단이 심리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더 명확히 파악하기 자기 은폐와 체면 손상이 선호 집단을 기준으로 양가 태도 집단과 무태도 집단, 강한 선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지 살펴보았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 은폐와 체면 손상은 선호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양가 태도 집단에 속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즉, 자기 은폐가 높고 체면 손상이 높을수록 양가 태도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두 변인은 ATSPPH에서는 유사한 점수를 나타낸 무태도 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비일관적인 결과

가 보고되었던 자기 은폐, 체면 손상이 높을수록 선호 집단 보다 양가 태도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은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혀 온 비밀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Larson & Chastain, 1990),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 도움 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Cepeda-Benito & Short, 1998).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비밀을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회의감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 도움 추구를 하는 것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즉, 자기 은폐는 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비밀들에 대해 털어놓는 것이 건강한 대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상담을 받는 것이 쓸모없거나 나약한 행동이라는 양가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상담 장면으로 적용해 보자면, 상담 장면에서 자신을 개방해야 할 것에 대한 두려움(Cepeda-Benito & Short, 1998)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를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불신할 수 있다. 자기 은폐 척도(Self-Concealment Scale: SCS) 문항을 참고해 볼 때(Larson & Chastain, 1990), 자기 은폐가 높은 사람들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예상한다. 따라서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자신을 개방해야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심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는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특성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나 혹은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야 한다고 생각해 낙인과 정적인 상관성이 나왔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지인들이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자신이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체면 손상의 경우 마찬가지로 전문적 도움 추구를 받는 것이 체면 손상을

야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호 집단에 비해 양가 태도 집단에 속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Yakinina, & Weigold, 2011). 체면 손상에 대한 두려움, 체면 손상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규범과 가치관에 따르기 위해 남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Zane, 2000), 상담이 보편화 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상담을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다. 불신의 경우, 체면 손상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은 상담 장면에서 상담가에게 자신의 실수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체면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해 상담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체면 손상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은(Zane, 2000) 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모순점이나 비합리적인(irrational)부분을 직면하는 것이 본인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전문적 도움 추구를 쓸모없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체면이 깎이는 것에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본인에게 부과될 기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Zane, 2000). 따라서 자기 은폐와 마찬가지로 전문적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것이 유용하고 타인에게 당당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동시에 신경 쓰이고 의심스럽다는 태도를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즉, 자기 은폐와 체면 손상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기 보다는 양가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Cramer(1999)는 자기 은폐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자기 은폐가 태도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를 낮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상관관계를 참고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자기 은폐가 긍정적인 태도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자기 은폐 뿐 아니라 체면 손상 역시 혼재된 결과를 보인 변인이었는데, Yakunina와 Weigold(2011)에 따르면 체면 손상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여기면 부정적인 태도를, 전문적 도움을 받지 않을 때 증상이 더 심각해져 체면이 손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면 양정평정 방식으로 태도를 측정하여 무태도와 양가 태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중간 점수로 측정된 점이 접근-회피 요인 연구에 있어 혼재된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 양가 태도와 무태도 집단이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중립 태도로만 측정되면서 그 특성들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연구에 따라 비일관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다.

또, 심리적 불편감의 경우 많은 선행 연구에서 전문적 도움 추구 연구 모형에 변인으로 고려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심리적 불편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예상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심리적 불편감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각 집단 간 심리적 불편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불편감이 각 집단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즉, 심리적 불편감에 따라 태도가 변화하기 보다는 심리적 불편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도 선호 집단을 기준으로 한 대상이 다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불편감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보다는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 선행하는(Rickwood &

Braithwaite, 1994)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흥미로운 점은 ATSPPH로 측정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점수에서는 무태도 집단과 양가 태도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가 Duncan 사후 검증에 있어서는 구별되는 하위 집단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의 상관성이 낮았던 연구가 존재하는데(박준호, 서영석, 2009), 전문적 도움 추구를 양정 평정으로 측정했을 때는 무태도 집단과 양가 태도 집단이 혼재됨으로써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양가 태도 집단의 경우, 선호 집단 보다는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고, 무태도 집단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의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 반면 무태도 집단의 경우는,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 모두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적 도움 추구 자체를 불편감의 해소 방법으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각 집단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와 선행 연구들을 참고한다면, 양가 태도 집단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던 자기 은폐와 체면 손상이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고(Larson & Chastian, 1990), 심리적 고통은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의 선행 요인이기 때문에(Rickwood & Braithwaite, 1994)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태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함에 있어 선행 연구의 집단 구분의 인위성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군집 분석을 사용해 4개의 집단을 도출했지만, 강한 선호 집단은 소수여서 그 특성에 대한 탐색에 제한이 있었다. 또, 상담 관련 경험을 살펴봄에 있어서, 본 연구는 상담을 경험했던 사람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을 균등하게 포집 한 선행 연구와 달리(정주리, 연규진, 양지웅, 김정기, 2016) 전문적 도움 추구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드러나지 않았

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척도이며, 아직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지 않은 만큼, 그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의의를 갖는다. 우선, 집단 구분을 통해 분류한 양가 집단과 무태도 집단이 실제로 양정 평정 측정 방식에서 유의미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연구에 있어 긍정성과 부정성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거나 양가성을 고려할 수 있는 척도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집단 구분하였을 때 부정적인 태도가 강하고 긍정적인 태도가 낮은 집단이 분류되지 않았다. 이는 사회에서 전문적 도움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인식의 변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양가적인 태도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적 도움 추구를 홍보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 선행 연구를 재검증하거나 선행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는 후속 연구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태도가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 비해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는 의의가 있다.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측면을 살펴보면 연령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성별의 분포가 거의 균등하며 전국적인 단위의 표집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본의 구성은 잠재적 내담자가 대학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성인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및 관련 변인들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전문적 도움 추구 관련 연구들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일반화의 한계들이 지속해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김혜경, 2012; 유성경, 2005; 정주리, 연구진, 양지웅, 김정기, 2016; Kim & Park, 2009; Komiya, Good, & Sherro, 2000; Vogel, Wade, & Hackler, 2007).

마지막으로, 참가자가 예상하는 전문적 도움 추구 비용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담 비용의 평균은 약 41,450원으로, 비록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추후 비용 관련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평균 가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러한 비용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때 상담 관련 보험 혹은 비용 지원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비용이 다른 기관을 찾는 내담자들의 심리적 차이, 인구 통계학적 차이를 밝혀낸다면 각 기관의 상황에 맞는 홍보 및 접근성 증진 방안과 보험과 관련한 기준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민, 양대희 (2010).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자기은폐성향의 영향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28(2), 95-108.
- 김주미. (2001). 심리적 불편감, 자기은폐, 사회지지망, 개인주의-집단주의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91-1002.
- 김혜경 (2012). 대학생의 상담전문가에 대한 도움요청 연구: 도움요청태도가 도움요청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1), 93-111.
- 문수정, 김계현 (2012). 추천자의 유사성에 따른 상담에 대한 태도형성과정 비교분석. **상담학연구**, 13(5), 2067-2084.
- 박정언, 박은아 (2016). 여대생의 도움추구 행위, 자기개방성 및 자기은폐 간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28(1), 47-58.
- 박준호, 서영석 (2009).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갈등과 상담 의도와의 관계: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5-48.
- 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 신예지 (2013). 상담 효과 및 이용편의에 관한 후기가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수정, 서영석 (2017). 중년 남성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관한 연구: 성역할 갈등, 자기 낙인, 상담 태도, 상담 의도 간 관계에서 중년의 위기감과 상담

- 친화적 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29-657.
- 오태균, 김미경. (2013). 신학대학원생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자기개념, 공감능력 및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39, 241-280.
- 유성경 (1998). 우울의 표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화 간 비교연구: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 간의 비교. **청소년상담연구**, 8, 93-114.
- 유성경 (2005). 한국 대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17-632.
-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9-32.
- 유성경, 이동혁 (2000).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55-68.
- 이미경, 김아름, 최성인, 남숙경, 이상민 (2010). 상담에 대한 양가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1(2), 465-483.
- 이미경, 이상민 (2013). 상담에 대한 양가태도집단의 특성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1(1), 189-210.
- 이석재, 최상진 (2001). 체면지향행동의 이원구조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65-83.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우람 (2016).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수용도, 심리적 불편감 및 상담준비도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진이 (2001). 자기 은폐와 정서 표현 성향, 지각된 사회적지지 그리고 도움 추구 태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주리, 연구진, 양지웅, 김정기 (2016) 상담경험 유무에 따른 성별, 심리적 어려움, 상담관련 경험 및 태도가 대학생의 상담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

- 향. *청소년상담연구*, 24(1), 131-150.
- Abelson, R. P., Kinder, D. R., Peters, M. D., & Fiske, S. T. (1982). Affective and semantic components in political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4), 619-630.
- Addis, M. E., & Mahalik, J. R. (2003). Men, masculinity, and the contexts of help seeking. *American Psychologist*, 58(1), 5-14.
- Aeigsdottir, S., & Gerstein, L. H. (2009). Beliefs about psychological services(BAP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2(2), 197-219.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 Ajzen, I., & Fishbein, M. (1977).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5), 888-918.
- Ajzen, I., Timko, C., & White, J. B. (1982). Self-monitoring and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3), 426-435.
- Angermeyer, M. C., & Matschinger, H. (2005). Have there been any changes in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psychiatric treatment? Results from representative population surveys in Germany in the years 1990 and 2001. *Acta Psychiatr Scand*, 111, 68-73.
- Bathje, G. J., Kim, E., Rau, E., Bassiouny, M. A., & Kim, T. (2014). *Int J Adv Counseling*, 36, 408-422.
- Cauce, A. M., Domenech-Rodriquez, M. D., Paradise, M., Cochran, B. N., Shea, J. M., Srebnik, D., & Baydar, N. (2002). Cultural and

- contextual influences in mental health help seeking: A focus on ethnic minority youth.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44-55.
- Cepeda-Benito, A. & Short, P. (1998). Self-concealment, avoidance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58-64.
- Chiu, T., Fang, D., Chen, J., Wang, Y., & Jeris, C. (2001). *A robust and scalable clustering algorithm for mixed type attributers in large database environment*. In Proceedings of the 7th ACM SIGKD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2001, 263-268.
- Constantine, M. G. (2002). Predictors of Satisfaction with counseling: Racial and ethnic minority, clients' attitudes toward counseling and rating of their counselors' general and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2), 255-263.
- Cramer, K. M. (1999). Psychological antecedents to help-seeking behavior: a reanalysis using path modeling struct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81-387.
- David, E. J. R. (2010). Cultural mistrust and mental health help-seeking attitudes among Filipino American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1), 57-66.
- Fischer, E. H., & Turner, J. L. (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36(1), 79-90.
- Gati, I., Landman, S., Davidovitch, S., Asulin-Peretz, L., & Gadassi, R.

- (2010). From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to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 277-291.
- Gilchrist, L. A., & Stringer, M. (1992). Marketing counseling: Guidelines for training and practice.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1*, 154-162.
- Hair J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ath P. J., Vogel, D. L., & Al-Darmaki, F. R. (2016). Help-seeking attitudes of United Arab Emirates students: Examining loss of face, stigma, and self-disclosure. *The Counseling Psychology*, *44*(3), 331-352.
- Kelly, A. E., & Achter, J. A. (1995). Self-concealment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1), 40-46.
- Kim, B. S. K., Atkison, D. R., & Umemoto, D. (2001). Asian cultural values and the counseling process: Current knowledg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y*, *29*(4), 570-603.
- Kim, P. Y., & Park, I. J. K. (2009). Testing a multiple mediation model of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willingness to see a counselor.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5*, 295-302.
- Komiya, N., Good, G. E., & Sherrod, N. B. (2000).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138-143.

- Kushner M. C., & Sher, K. J. (1989) Fear of psychological treatment and its relation to mental health service avoidan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0(4), 251-257.
-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4), 439-455.
- Leong, F. T. L., Kim, H. H. W., & Gupta, A. (2011). Attitudes toward professional counseling among Asian-American college students: Acculturation, conceptions of mental illness, and loss of face.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2(2), 140-153.
- Leong, F. T., Wagner, N. S., & Kim, H. H. (1995). Group counseling expectations among Asian American students: The role of culture-specific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2), 217-222.
- Masuda, A., Anderson, P. L., Twohig, M. P., Feinstein, A. B., Chou, Y., Wendell, J. W., & Stormo, A. R. (2009). *Int J Adv Counseling*, 31, 168-180.
- Molock, S. D., Barksdale, C., Matlin, S., Puri, R., Cammack, N., & Spann, M. (2007) Qualitative study of suicidality and help-seeking behaviors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Am J Community Psychol*, 40, 52-63.
- Nash, J. L., & Cavenar, J. O. (1976). Free psychotherapy: An inquiry into resistance. *Am J Psychiatry*, 133(9), 1066-1069.
- Priester, J. R., & Petty, R. E. (1996) The gradual threshold model of ambivalence: Relat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bases of attitudes to

- subjective ambiva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 431-449.
- Rickwood, D. J., & Braithwaite, V. A. (1994). Social-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help-seeking for emotional problems. *Soc. Sci. Med.*, 39(4), 563-572.
- Robb, D., Haley, W. E., Becker, M. A., Polivka, L. A., & Chwa, H. J. (2003). Attitudes towards mental health care in younger and older adul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ging & Mental Health*, 7(2), 142-152.
- Subich, L. M., & Hardin, S. I. (1985). Counseling expectations as a function of fee for serv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3), 323-328.
- Thompson, M. M., Zanna, M. P., & Griffin, D. W. (1995) Let's not be indifferent about (attitudinal) ambivalence. *Attitude Streng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4, 361-386.
- Vogel, D. L., Wade, N. G., & Hackler, A. H. (2007). Perceived public stigma and the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he mediating roles of self-stigma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1), 40-50.
- Yakunina, E. S., & Weigold, I. K. (2011).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Integrating cognitive and cultural predictor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2(3), 219-224.
- Yamashiro, G., & Matsuoka, J. K. (1997). Help-seeking among Asian and Pacific Americans: A Multiperspective analysis. *Social Work*, 42(2), 176-186.

영문 초록

Exploration of clusters in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eeking

focused on self-concealment, loss of face, psychological distress and experiences relating to counseling

This study explore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us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e instead of bipolar rating scale. The study conducted two-steps cluster analysis to find natural classification of attitudes groups. Also,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es groups and self-concealment, loss of face, psychological distress and experiences relating to counseling were investigated. Sampling targets were adults older than 19 in South Korea, and 295 samples were analyzed. Cluster analysis indicated that preference group, strong preference group, ambivalent attitude group, and non-attitude group were classified from the sample. An ambivalent attitude group and a non-attitude group had a similar pattern of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but the ambivalent attitude group had stronger attitudes than the non-attitude group. In logistic regression, self-concealment and loss of face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ambivalent attitudes group in reference to the preference group. Based on the findings, importance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word: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eeking, self-concealment, loss of face, psychological distress, experiences related to counseling.

부록

1) 상담에 대한 의미 변별 형용사 척도

다음은 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을 나열한 것입니다. 상담 혹은 심리치료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동에 대해 다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예시>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1	약간 도움되는 ○	상당히 도움되는 3	매우 도움되는 4
1.	전혀 건강하지 않은 1	약간 건강한 2	상당히 건강한 3	매우 건강한 4
2.	전혀 독립적이지 않은 1	약간 독립적인 2	상당히 독립적인 3	매우 독립적인 4
3.	전혀 믿을만하지 않은 1	약간 믿을만한 2	상당히 믿을만한 3	매우 믿을만한 4
4.	전혀 유용하지 않은 1	약간 유용한 2	상당히 유용한 3	매우 유용한 4
5.	전혀 당당하지 않은 1	약간 당당한 2	상당히 당당한 3	매우 당당한 4
6.	전혀 현명하지 않은 1	약간 현명한 2	상당히 현명한 3	매우 현명한 4
7.	전혀 필요하지 않은 1	약간 필요한 2	상당히 필요한 3	매우 필요한 4
8.	전혀 스스럼없지 않은 1	약간 스스럼없는 2	상당히 스스럼없는 3	매우 스스럼없는 4
9.	전혀 나약하지 않은 1	약간 나약한 2	상당히 나약한 3	매우 나약한 4
10.	전혀 의존적이지 않은 1	약간 의존적인 2	상당히 의존적인 3	매우 의존적인 4
11.	전혀 의심되지 않는 1	약간 의심되는 2	상당히 의심되는 3	매우 의심되는 4

12	전혀 쓸모없지 않은 1	약간 쓸모없는 2	상당히 쓸모없는 3	매우 쓸모없는 4
13	전혀 부끄럽지 않은 1	약간 부끄러운 2	상당히 부끄러운 3	매우 부끄러운 4
14	전혀 어리석지 않은 1	약간 어리석은 2	상당히 어리석은 3	매우 어리석은 4
15	전혀 불필요하지 않은 1	약간 불필요한 2	상당히 불필요한 3	매우 불필요한 4
16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1	약간 신경 쓰이는 2	상당히 신경 쓰이는 3	매우 신경 쓰이는 4

2) ATSPPH-SF

다음은 상담/심리치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해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선택지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만약 정신적인 문제로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 되면 나는 우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것이다.	1	2	3	4
2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와 의논하는 것은 정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1	2	3	4
3	만약 내가 현재 심각한 정서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면 상담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	2	3	4
4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갈등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의 태도는 존경할	1	2	3	4

	만하다.				
5	만약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불안과 걱정으로 고통 받았다면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겠다.	1	2	3	4
6	나는 언젠가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기 원할지도 모른다.	1	2	3	4
7	정서적인 문제(예: 우울, 불안, 분노 등)를 가진 사람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8	상담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1	2	3	4
9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상담을 받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1	2	3	4
10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어려움도 저절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3) 자기은폐 척도

아래 문항이 귀하를 잘 나타내면 5점 혹은 5점 가까운 쪽 숫자에, 귀하를 잘 나타내지 못하면 1점 혹은 1점에 가까운 쪽 숫자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1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중요한 비밀이 있다.	1	2	3	4	5
2	친구들이 내 비밀을 모두 알게 되면, 나를 덜 좋아하게 될 것이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알아봐 감추고 있는 것들이 많다.	1	2	3	4	5
4	내 비밀 가운데 몇 가지는 나를 정말 괴롭혀 온 것들이다.	1	2	3	4	5
5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추는 편이다.	1	2	3	4	5
6	나는 가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일들을 내 자신이 드러낼까봐 두렵다.	1	2	3	4	5
7	비밀을 말하는 것은 종종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차라리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때가 있다.	1	2	3	4	5
8	나의 비밀은 너무나 은밀한 것이어서 그것에 대해 누군가가 묻는다면 거짓말을 할 것이다.	1	2	3	4	5
9	내 비밀은 너무 창피스러운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	1	2	3	4	5
10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다.	1	2	3	4	5

4) 체면 손상 척도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를 가장 적절히 설명하는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닌 편이 다	약간 아니 다	그저 그렇 다	약간 그렇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누군가와 단 둘이 있을 때 나를 비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판하는 것이 더 기분이 상한다.	1	2	3	4	5	6	7
2	나는 토론을 할 때,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식하게 보일까봐 질문을 꺼린다.	1	2	3	4	5	6	7
3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할까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있다.	1	2	3	4	5	6	7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사 표현을 할 때, 미리 내가 할 말을 잘 다듬어서 한다.	1	2	3	4	5	6	7
5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실제보다 더 큰 기대를 할까봐 내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낮추어 이야기한다.	1	2	3	4	5	6	7
6	나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계획한다.	1	2	3	4	5	6	7
7	나는 의사 표현을 하기 전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을 먼저 한다.	1	2	3	4	5	6	7
8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어떤 기대를 할지 걱정한다.	1	2	3	4	5	6	7
9	나는 남들에게 수고를 끼치게	1	2	3	4	5	6	7

	될까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망설여진다.							
10	나는 나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일을 안하려고 한다.	1	2	3	4	5	6	7
11	나는 남에게 창피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12	나는 내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남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한다.	1	2	3	4	5	6	7
13	나는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도 대외적으로 불평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14	나는 일반적인 가치관에 따르기 위해 남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려고 한다.	1	2	3	4	5	6	7
15	나는 남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상황에 대해 준비한다.	1	2	3	4	5	6	7
16	나는 누군가와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제 삼자를 통하는 것을 선호한다.	1	2	3	4	5	6	7
17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7
18	나는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그 사람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7
19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들이 내 실수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노력한다.	1	2	3	4	5	6	7
20	나는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에도, 그것을 비판하지 않으려	1	2	3	4	5	6	7

	고 애쓴다.							
21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창피를 주면, 그것을 잊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7

5) GHQ-12

다음 문항들은 당신이 지난 몇 주일 동안(오늘을 포함해서) 일상생활에서 겪은 경험들을 기술한 것입니다. 하나 하나 자세히 읽어보시고 당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선택지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1	2	3	4
2	근심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	1	2	3	4
3	나는 쓸모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4	어떤 일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항상 긴장하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6	닥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다.	1	2	3	4
7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즐길 수 있다.	1	2	3	4

8	자신의 문제가 벅차다고 느낀다.	1	2	3	4
9	불행하거나 우울하다고 느낀다.	1	2	3	4
10	자신감을 잃고 있다.	1	2	3	4
11	자신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12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낀다.	1	2	3	4

6) 상담에 대한 의도

다음 문항내용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여러 가지 문제'의 목록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으러 갈 의향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해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선택지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절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체중조절	1	2	3	4	5	6
2	과도한 음주	1	2	3	4	5	6
3	대인관계 문제	1	2	3	4	5	6
4	성 문제	1	2	3	4	5	6
5	우울증	1	2	3	4	5	6

6	부모님과의 갈등	1	2	3	4	5	6
7	발표 불안	1	2	3	4	5	6
8	이성 문제	1	2	3	4	5	6
9	진로 선택	1	2	3	4	5	6
10	수면 곤란	1	2	3	4	5	6
11	약물 복용 문제	1	2	3	4	5	6
12	열등감	1	2	3	4	5	6
13	시험 불안	1	2	3	4	5	6
14	교우관계 문제	1	2	3	4	5	6
15	학업문제 (학업태만, 학업부진)	1	2	3	4	5	6
16	자기 이해 증진	1	2	3	4	5	6
17	외로움	1	2	3	4	5	6

7) 인구통계학적 변인

1. 귀하의 연령(만 나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만 30세의 경우 '30'이라고 기입해 주십시오.

()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 여성

- ② 남성
- ③ 기타

3.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 ① 대학생/대학원생
- ② 사무직/경영관리직
- ③ 자영업/프리랜서
- ④ 판매영업직/서비스직
- ⑤ 기능직/생산직
- ⑥ 공무원
- ⑦ 주부
- ⑧ 무직
- ⑨ 기타: ()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예)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 ① 초등학교 졸업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전문대학 혹은 대학교 졸업
- ⑤ 석사과정 이상 졸업

5. 귀하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
- ② 중하
- ③ 중
- ④ 중상
- ⑤ 상

6. 귀하는 이전에 심리 건강 서비스(심리 상담, 심리 치료 등)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신 분만
상담 경험에 대한 기억을 잠시 떠올리고 다음 문항에 응답해주시오.
상담 경험이 없는 분은 7번 문항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6-1. 나는 상담을 통해 내가 원하는 도움을 받았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약간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6-2. 상담은 내가 고민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약간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6-3. 상담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약간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7. 귀하의 지인 중에 심리 건강 서비스(심리 상담, 심리 치료 등)를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8. 귀하는 지인으로부터 심리 건강 서비스(심리 상담, 심리 치료 등)를 이용해 보라고 권유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9.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강원도
- ② 경기도/인천
- ③ 경상도/대구/부산/울산
- ④ 서울
- ⑤ 전라도/광주
- ⑥ 제주도
- ⑦ 충청도/대전/세종
- ⑧ 해외

10.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개신교
- ② 천주교
- ③ 불교
- ④ 무교
- ⑤ 기타: ()

11. 귀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상담 1회(50분 기준)의 비용은 어느정도입니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숫자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